한국보육지원학회지, 창간호, 2005,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 No.1, 2005. pp.147-165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Modernity and Children's Misbehavior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김혜순(*Kim, Hye Soon*)*, 강기숙(*Kang, Gi Sook*)**, 윤영배(*Yun, Young Bae*)***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아동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중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여아들보다 남아들에게서 과잉활동을 보이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대적 양육관이 높았고,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으며 아동의 과잉활동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였다.

주제어 : 행동문제, 양육스트레스, 현대적 양육관

*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공동저자(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g9974021@hanmail.net
***공동저자 : 위덕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교육시키는 책임을 갖도록 해 보다 인격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성인의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기쁨이나 보람 못지않게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bidin(1990)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지각정도와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어머니가 느끼는 정도 이상의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특히 유아기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Abidin, 1990)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생애 초기 5년간은 유아의 심신발달과 모-자녀 관계성에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발달단계가 각기 다른 부모나 자녀가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내적, 외적 요구가 이를 다루어 갈 적응자원보다 지나치면,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좌절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최영희, 1990).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어왔다. 즉,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Webster-Stratton, 1988)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피로감(Abidin, 1990), 자녀의 유별난 기질과 행동, 어머니의 성격이나 가치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가치관의 혼재, 대리양육자의 유무, 직업의 유무, 직업근무시간 등이 모두 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녀의 행동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도 어머니가 느끼는 부정적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컸다(김명희, 1999; 박미정, 2001; 안지영, 2001; 유우영·이숙, 1998; Emiko & Alan, 2000).

미취학아동들의 행동문제란 그것이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매우 일반적인 것도 아니라는 명백한 추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였다. 그러나 유아기 연령의 아동들의 행동문제의 비율은 학동기아동들의 행동문제 비율과 비슷하다는 연구들(Olson & Hoza, 1993; 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이 있었다. 더욱이 공격성이나 과잉행동같은 행동문제들은 이미 2세에서 5세 사이에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Achenbach, Edelbrock, & Howell, 1987;

Rose, Rose, & Feldman, 1989)되었고, 아동기 초기에서 중기로 전환되어갔으며, 특히 남아들인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였다(Bates, Bayles, Bennett, Ridge, & Brown, 1991; Campbell, Ewing, Breaux, & Szumowski, 1986). 그러므로, 미취학아동들의 일부의 행동문제들은 일시 스쳐가는 경과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규준적인 발달과정상에 있는 아동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가 유아에게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동이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양방적인 상호작용이 연구되고 있다. 즉, 아이들의 행동이 그들 부모들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Emiko & Alan, 2000)고 밝혀지고 있다. 유아의 행동문제는 부모가 제공하는 강화와 보상에 의해 학습되어진다(Patterson, DeBarsyshe., & Ramsey, 1989). 그러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들의 행동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Belsky's(1984)의 양육의 결정인자 모형과 Mash와 Johnston(1990)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특성이나 행동문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동문제들은 어머니들이 매우 크게 느끼는 부정적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할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성격 및 행동이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국내의 선행연구 역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가 유아 및 아동의 학습문제 및 여러 가지 정서. 행동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왔다(최용주, 1993; Block, 1983; Eme, 1979; Rutter, 1983). 또한 어머니의 양육관의 차이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성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Miller, 2001; Olweus, 1980; Palmerus, 1999)도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갖는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그밖에도 자신의 특성 즉, 기질, 교육, 양육태도, 양육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성혜, 1994).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관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유아의 사회화에 대한 어머니의 책무로 인식되어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한 사회의 보편적인 지식이나 가치를 전수시키려는 부모의 욕구, 태도, 가치, 신념 등으로 인식되어진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한 사회의 보편적 기준과 신념(belief)은 곧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관을 형성하게 되고 실제적인 자녀양육 과정에서 받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회는 한 개인의 융통성, 창의성, 변화에의 순응성을 보다 더 요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머니들은 양육관에 있어 보다 진보적인 현대적 양육관과 전통적 가치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전통적 양육

관이라는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현대적 양육관이란 보다 급속히 변화하는 한 사회의 흐름에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성으로서 부모의 권위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민주적 양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르게 할 것이며 또한 유아의 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들의 현대적, 전통적 양육관에 관한 연구로는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대적 양육관이 높았다는 결과를 밝힌 김지신(1996)의 연구가 있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성, 연령, 행동문제 같은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하고, 그 외에도 어머니 자신의 특성인, 연령, 학력, 직업유무, 자녀양육관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 자신의 특성이 함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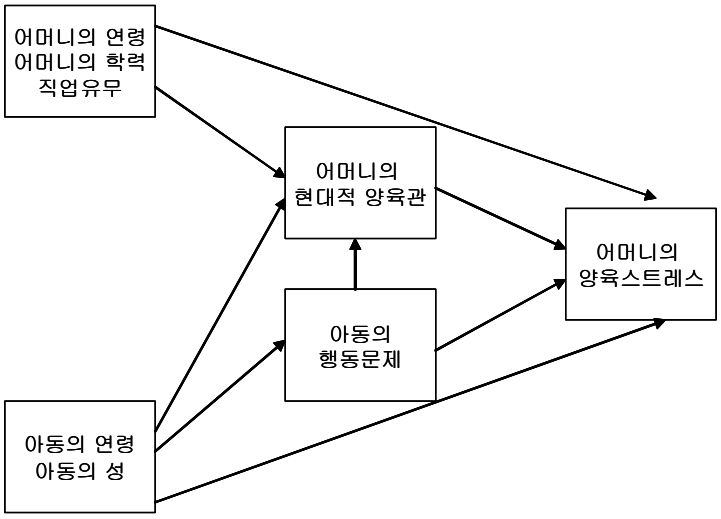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아동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가치관의 현대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양육관의 현대화에 따르는 변화의 일환으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학력·연령, 직업유무,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연령·성, 행동문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가설적 인과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에 위치한 6개 어린이집의 4세-6세 아동을 자녀로 둔 210명의 어머니이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58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0부를 자료로 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16(55.2%), 여아가 94(44.8%)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4세가 97명(46%), 5세가 98명(47%), 6세가 15명(7%)의 분포로 4, 5세가 많은 편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35세(57.1%)가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1명, 46세 이상도 4명(1.9%) 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2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72명(34.3%), 그리고 전문대 또는 대학중퇴가 33명(15.7%), 대학원 이상이 1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20명(5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9명(18.6%), 자영상공업 22명(10.5%) 순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평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어머니들에게는 현대적 양육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와 Edgerton(1985)가 개발한 부모의 현대성 척도(Parental modernity scale)가 주어졌다. 부모의 현대적 양육관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딪치는 부모들의 진보성과 보수성(progressive와 tranditional attitude)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며 부모들의 가치와 공유된 책임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현대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위문항은 2가지 태도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머니의 양육성향을 전통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전통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된다.'이고, 진보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가 주어져야만 한다.'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성 요인 17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는 .65 이었다.

2) 유아행동의 행동문제

아동들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Scarr와 Ricciuti(1987)가 개발한 아동행동의 유순성 척도(Manageabilit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이 얼마나 유순하고 통제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위문항은 2가지 차원으로 , 아동의 유순성을 과잉행동과 통제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행동을 역코딩하여 과잉행동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과잉행동 문항의 예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과잉행동적이다.", "부주의 하고, 쉽게 산만해진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등이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70 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은 과잉활동과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ichard R. Abidin(1983)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목록표(PSI : Parenting Stress Index, 1~12세용)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아동의 관계상의 스트레스를 아동특성 영역, 부모특성 영역, 생활긴장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영역이 양육적 기능과 더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Abidin(1990)의 해석에 근거하여 부모 영역 12문항, 아동 영역 12문항 생활긴장 영역 8문항으로 총 32문항만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의 특성은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84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를 사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현대적 양육관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중다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인 중 아동의 행동문제($t=2.24$, $p<.05$)에서만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들 보다 남아들에게서 과잉활동을 보이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변 인	전체(n=210)	남아(n=115)	여아(n=95)	t
현대적 양육관	3.56(.40)	3.53(.38)	3.61(.41)	*-1.36*
행동문제	3.72(.36)	2.25(.51)	2.09(.54)	*2.24**
양육스트레스	2.18(.53)	3.69(.35)	3.76(.38)	*-1.35*

** p<.05*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현대적 양육관

1)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현대적 양육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접, 간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관이 현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β=.21, p<.05). 또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하였다(β=-.26, p<.01).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로 보고있는 과잉활동(β=.29, p<.01)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2>.

<표 2> 남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 스트레스

종속변수 / 독립변수	현대적 양육관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어머니 학력	.21*	.00		
어머니 연령	.02	.03		
어머니 현대적 양육관			-.26**	
아동 행동문제				.29**
R^2	.04	.00	.07	.08
F	*2.51*	*.05*	*8.15***	*9.82***

**p<.05, **p<.01*

한편, 여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과잉활동(β=.32, p<.01)만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3>.

즉, 남아의 경우에서는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흔히 어머니들은 여아보다 남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표 3> 여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 스트레스

종속변수 / 독립변수	현대적 양육관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어머니 학력	.12	.05		
어머니 연령	-.20	.00		
어머니 현대적 양육관			-.06	
아동 행동문제				.32**
R^2	.05	.00	.00	.10
F	*2.36*	*.10*	*.27*	*10.02***

***p<.01*

2)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현대적 양육관

유아의 연령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과잉활동(β=.38, p<.001)만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4>.

<표 4> 4세 유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 스트레스

종속변수 / 독립변수	현대적 양육관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어머니 학력	−.13	.07		
어머니 연령	.06	−.02		
어머니 현대적 양육관			−.12	
아동 행동문제				.38***
R^2	.02	.01	.01	.14
F	*1.08*	*.31*	*1.53*	*17.87****

****p<.001*

한편, 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이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학력(β=.26, p<.01)이 높을수록, 연령(β=-.26, p<.01)이 낮을수록 양육관이 현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관이 현대적일수록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하였다(β=-.30, p<.01).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로 보고 있는 과잉활동(β=.32, p<.01)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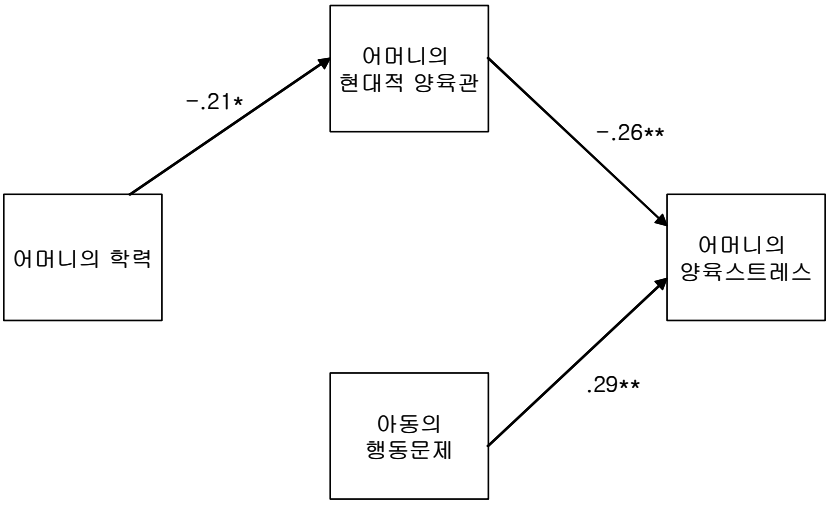
<표 5> 5세 유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 스트레스

종속변수 / 독립변수	현대적 양육관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양육스트레스 (β)
어머니 학력	.26**	−.07		
어머니 연령	−.26**	.00		
어머니 현대적 양육관			−.30**	
아동 행동문제				.32**
R^2	.13	.00	.09	.10
F	*6.68*	*.20*	*9.13*	*10.40***

***p<.01*

3. 어머니의 학력·연령,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및 양육스트레스의 경로모형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은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아동의 성별도 행동문제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모형을 단순화시켰다. 여기서 표준화된 β값이 경로계수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남아 어머니의 학력·연령,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및 양육스트레스의 경로모형(* *p<.05*, ** *p<.01*)

위 그림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β=-.26, p<.01)를 보여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현대적 양육관에 직접적인 효과(β=.21, p<.05)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효과(β=.29, p<.01)를

보여 과잉활동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대적 양육관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적 양육관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현대적 양육관을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각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남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현대적 양육관	어머니 학력	.21	---	.21
	어머니 연령	---	---	---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학력	---	-.05	-.05
	어머니 연령	---	---	---
	어머니 현대적 양육관	-.26	---	-.26
	아동 행동문제	.29	---	.29

<표 4>에 의하면 첫째, 현대적 양육관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이 주는 총효과는 (β=.21) 어머니의 연령(β=.00)주는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독립변인들이 주는 전체효과는 아동의 행동문제가 주는 총효과(β=.29) > 현대적 양육관의 총효과(β=-.26) > 어머니 학력(β=-.0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독립변인들이 주는 직접효과는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β=-26)이 어머니 학력(β=-.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보다 아동의 행동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아, 여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중 아동의 행동문제에서만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양육에 있어 자녀의 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관에 따른 자녀의 훈육방법,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보고(Pinkerton and Scarr, 1995)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려성, 자기통제와 같은 특성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가치를 두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된 국외 연구들(Block, 1983)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아들 보다 남아들에게서 과잉활동을 보이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에서 남아가 과잉 운동적 성향과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다고 한 연구결과(홍강의 · 홍경자, 1985) 및 외국의 많은 연구(Rutter, 1983; Eme, 1979; Holden et al., 1995)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를 살펴본 전정숙(2004)의 연구에서도 외현적인 문제에서 주로 남아가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에서 남아가 과잉활동을 높게 보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부모들이 여아보다는 남아의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허용해주며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행동문제에 있어 덜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경향(최용주, 1993)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양육방법 중 체벌을 통한 양육방법과도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Bates, Pettie & Dodge, 1995; Tremblay, 1995; Holden et al., 199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현대적 양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대적 양육관이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전통적 가치관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김지신(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

계층과 부모의 가치가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고 자율보다는 복종을 중시하며, 계층이 높을수록 사려성, 자기통제, 행복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결과와 비교해 해석할 수 있다(Luster, & Okagaki, 1993). 또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전통주의 성향이 성향이 낮으며(김재은, 1987), 전통적 태도보다는 근대적 태도성향이 높다는(임희섭, 1986)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고, 아동의 과잉활동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들은 주로 어머니 자신의 특성, 아동특성, 사회적지지, 주변의 상황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아동특성이 부모특성보다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가장 큰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요약해보면,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볼 때 부모의 특성(개인적인 특성, 행동, 태도, 성격, 性)은자녀의 특성(개인적인 특성, 행동, 성격, 성, 발달적 단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반응은 다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Fagot and Kavanagh, 1993; Mi1ler, 1995; Palmerus, K., 1999).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아동의 과잉활동이 많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발달에 따른 특수한 행동문제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전양자, 1996; 가족스트레스연구회, 1994)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지나친 활동성은 어머니와 아동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보다 아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것을 뜻하며,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일치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전양자, 1996)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직접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을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을 높이고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양육관의 변화를 가져와 양육스트레스

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현대적 양육관이 높게 나타날수록 양육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아동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동의 의견을 수용해줌으로써 어머니와 아동간의 마찰이 감소하고,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관련 요소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가치 및 기대와 크게 관련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현대적 양육관을 질문지로 조사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이 응답한 내용과 실제의 양육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내용은 어머니의 양육관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임의표집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관과 실제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심층적 연구와 아동의 행동문제로 인한 양육행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8, 21-37.

김명희 (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은 (1987). 심리검사활용의 효과와 인간화. **교육평가연구**, 2(2).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 (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우영, 이숙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임희섭 (1988). 산업사회와 한국사회의 미래. 현대사회발전. 3(1).

전양자 (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1), 159-177.

전정숙 (200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계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용주 (1993). 학령기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강의·홍경자 (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문제연구. **서울의대정신의학**, 11(1).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chenbach, T. M., Edelbrock, C., & Howell, C. (198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the behavior/emotional problems of 2-3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629-650.

Bates, J.,Pettie, G., & Dodge, K. (1995). Family and child factors in stability and change in children's aggressiveness in elementary school.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ime perspective*. 124-1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lsky, J. (1984). The determination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lock, J.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Campbell, S., Ewing, L., Breaux, A. M., & Szumowski, E. (1986). Parent-referred problem three year olds: Follow-up at school entry. *Journal of Child Psycholosy and Psychiatry. 27,* 473-488.

Deater-Deckard and Scarr.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1)*, 45-59

Eme, R.F.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hood psychopatholog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Emeko, K. & Alan I. S. (2000).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affect and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39-50.

Fagot, B.I. and Kavanagh, K. (1993). Parenting during the second year: effects of children's age, sex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4(1)*, 258-271.

Holden, G. W., Coleman, S. M., & Schmidt, K. L. (1995). Why 3-year old children get spanked: Parent and child determinants as reported by college-educated mothers. *Meril-Palmer Quarterly, 41(4),* 431-452.

Luster, T.,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ibaum.

Mash, E. J. & Johnson, C. (1990).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sy 51(1)*, 86-89.

Miller, F. K. (2001). Parenting, Child Regulation, and Child Functioning: Tests of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Olson, S. L. & Hoza, B. (1993). Preschool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beginning schoo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1),* 60-67.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Palmerus, K. (1999). Self-reported discipline among Swedish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8,* 155-171.

Patterson, G. R., DeBarsyshe, B., & Ramsey, E. (1989). A develo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Child Psycholosy, 44,* 329-335.

Pinkerton, R. and Scarr, S. (1995). Parental discipline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 Scarr(Chair) *Policy, Punishment and Parenting: Parental Beliefs and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Canada.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Richman, N., Stevenson, J. S., & Graham, P. F.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memic.

Rose, S. L., Rose, S. A, & Feldman, J. F. (1989). Stability of behavior problems in very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 5-20.

Rutter, M. (1983). Statictical and personal interactions: Facets and perspectives. IN D.Magnusson & V.L.Allen(Eds.), *Human Developmen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295-314, New York: Academy Press.

Scarr, S., & Ricciuti. (1987). The managebility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unpublished manuscript.

Sega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fs. In E. Sigel(Ed.). *Parental Belif System*(pp. 345-371), Hillsa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chaefer, E. & Edgerton, M. D.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Ist edn. Hillside, NJ: Erlbaum, pp. 287-318.

Tremblay, R. (1995). Kindergarten behavioral patterns, parental practices, and early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ime Perspective*(pp. 139-1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bster-Stratton, C. (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sy 56*, 909-915.

Whipple, E. E., & Webster -Stratton, C. (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effect of the modernity of mothers and children's misbehavior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210 mothers who live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on the parental modernity of mothers by children's sex. Second,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by the level of education of mothers but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on parenting stress by the level of parental modernity. Third, the more mothers had the level of education, the more mothers had parental modernity. Fourth, more children had misbehavior, the more mothers had parenting stress, Fifth, the more mothers had the parental modernity, the less mothers had parenting 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enting stress was effected by both parenting modernity and children's misbehavior but also it was much relevant to children's misbehavior than parenting modernity.

Key words: misbehavior, parenting stress, parental modernity

2005. 12. 12 접수 : 2005. 12. 23 채택